



김영준의 18.44m

명문 롯데 재건의 시작 강한 프런트 구축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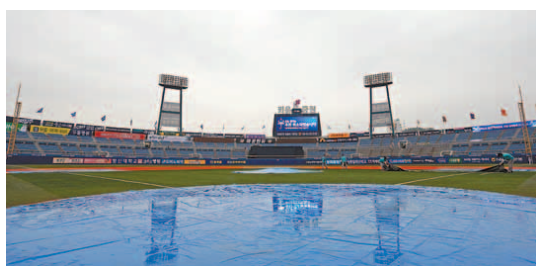


#롯데 신동빈 회장(사진)이 롯데 야구단의 역량 강화의지를 밝혔다. 신 회장은 롯데가(家)에서 야구에 애정이 많은 경영자라는 평을 듣는다. 한화의 사례에서처럼 야구단은 싸늘한 국민정서를 되돌릴 유력한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

#신 회장 발언 자체의 진정성을 의심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총수의 한마디에 야구계가 미리 들쭉이는 데는 걸리는 점이 두 가지 있다. 첫째, 신 회장의 발언을 '당장 롯데가 올 겨울부터 돈 보따리를 풀다'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다. 물론 재계 5위인 롯데그룹 최고경영자가 의지를 드러내면 못할 일은 없다. 그러나 지금 신 회장에게 급선무는 롯데 야구단이 아니라, 국민과 약속한 롯데그룹의 복잡한 순환출자구조의 개선이다. 롯데가 일본 기업이나 한국기업임을 입증하기 위해, 한국 롯데 계열사들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를 상장할 계획인데 이를 추진하면서 경영권을 잃지 않으려면 전문학적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제계의 정설이다. 따라서 신 회장의 발언은 '당장 돈 폭탄을 뿌리겠다'가 아니라 '야구단을 챙기고 강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는 편이 합당할 듯하다.

#둘째, 실력 롯데가 투자 확대를 바로 실행하더라도 그것이 곧 야구단의 체질 개선을 이끌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최고경영자의 '관심'이 성적으로 직결되지 않음을 우리는 LG와 SK의 사례를 통해 충분히 확인했다. 야구단 스포츠에서 프레이전트(FA) 선수 1~2명을 잡는다고 곧장 강팀이 되지는 않는다. 감독을 바꾸면 더 싼 값에 더 큰 파급력을 미칠 수 있으나, 이 역시 부분적이다. 건강한 팀 문화를 구축할 능력과 중장기 비전을 갖춘 프런트의 뒷받침 없이는 팀 재건이 쉽지 않다. 이 부분에서 2015년 롯데 프런트는 아직 '환부'를 적절하게 선보이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신 회장이 직접 챙긴다고 당장 롯데 야구단이 환골탈태할 것처럼 기대감을 갖게 해선 곤란하다. 프런트와 현장이 2015년을 준비하며 가졌던 '좋은 팀의 기초를 만든다'는 초심을 잊는 순간, 롯데 야구단은 더욱 험난한 파도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이다.

galzby@donga.com



KBO 잔여경기 일정 발표 예비일 없을 땐 '더블헤더'

KBO가 1일까지 우천으로 순연된 70경기와 미편성된 5경기를 포함한 총 75경기의 일정을 확정해 2일 발표했다.

이번에 편성된 잔여경기 일정은 1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다. KBO는 우천 등으로 경기가 취소될 경우 예비일 편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예비일이 없을 경우 '다음날 더블헤더', '동일 대진의 둘째 날 더블헤더', '동일 대진 싱글경기 더블헤더', '추후 편성'의 순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단, 한 팀이 최대 7연전까지만 가능하고, 이를 연속 더블헤더는 실시하지 않으며, 월요일부터 일요일을 기준으로 더블헤더 포함 8경기 이상 편성하지 않는다.

또 기존에 편성된 2일부터 13일까지 경기가 우천 등으로 취소될 경우 예비일 편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예비일이 없을 때는 15일 이후 '동일 대진의 둘째 날 더블헤더', '동일 대진 싱글경기 더블헤더', '추후편성'의 순으로 소화한다. 12일(토)과 13일(일) 경기는 취소되더라도 14일(월)에는 경기를 치르지 않는다.

더블헤더 제1경기 개시시간은 평일과 토요일은 오후 3시, 일요일 및 공휴일은 오후 2시이며, 제2경기는 제1경기 종료 후 20분 뒤 시작한다. 더블헤더 제1경기는 연장전 없이 9회까지만 거행한다.

한편 우천으로 연기되는 경기가 포스트시즌 진출팀과 관계없는 대진일 경우 포스트시즌 이동일에도 거행할 수 있다. 또 정규시즌 4·5위 및 4·5위 결정과 관계없는 팀간의 경기는 정규시즌 최종일과 와일드카드 결정전 개막일 사이의 이동일에 거행할 수 있다.

이명노 기자 nirvana@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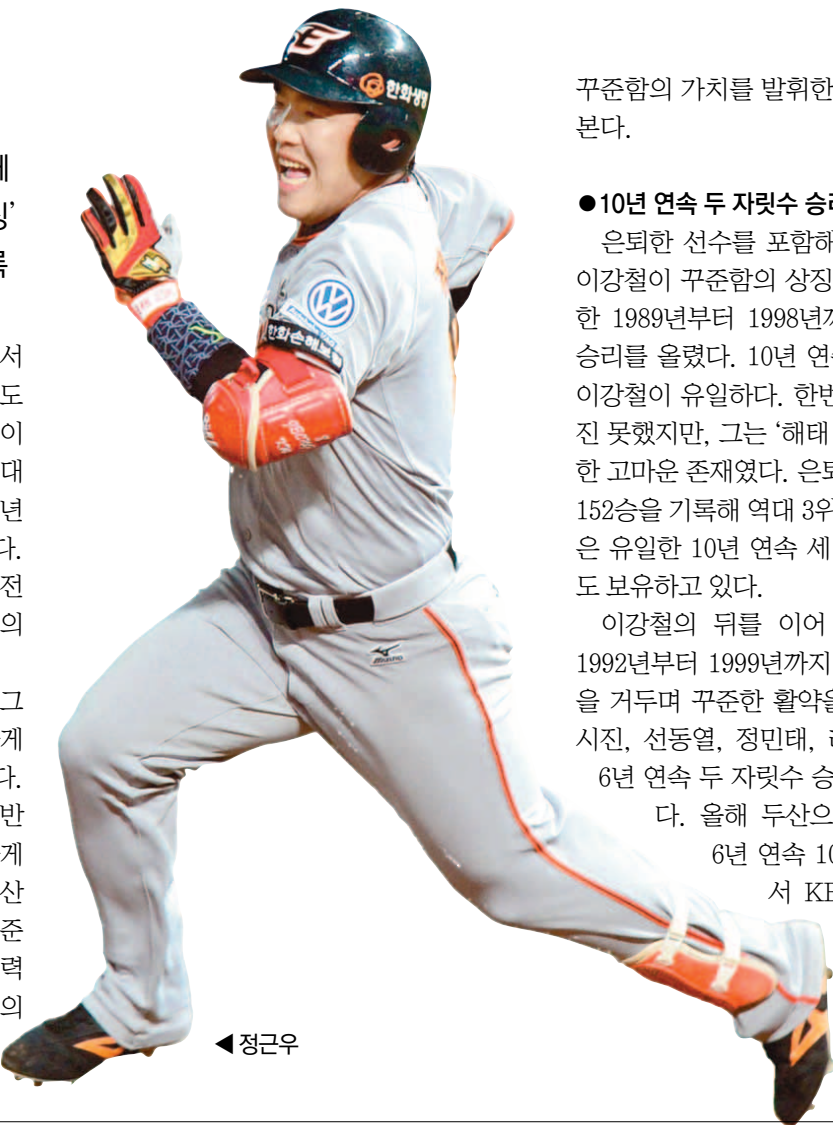
‘정근우의 꾸준함’ 기록 그 이상의 가치

베이스볼 브레이크

10년 연속 20도루…절제·정신력의 결정체
10년·두 자릿수 승 이강철 ‘꾸준함의 상징’
양준혁은 16년 연속 세 자릿수 안타 대기록

한화 정근우(33)가 1일 청주 KIA전에서 6회말 2루 도루에 성공하면서 10년 연속 20도루를 달성했다. KBO리그 역대 최초 기록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 고려대 졸업 후 2005년 프로에 데뷔한 그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10년 연속 대기록을 이어갔다. 이제 어느덧 30대 중반의 나이. 그러나 여전히 몸을 사리지 않는다. ‘하슬플레이’는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

누구나 한 번 반짝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이후 사라지는 선수는 부지기수다. 꾸준하게 활약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구단과 감독에게 물어보면 정장에서 한번 반짝하는 것보다, 최고는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자기 몫을 해내는 선수를 더 신뢰한다. 계산이 서는 선수만큼 고마운 존재도 없다. 꾸준함은 기량도 기량이지만, 자기절제와 정신력 등 모든 것이 결합돼야 가능하다. 정근우의 10년 연속 20도루를 계기로 10년 이상



정근우

꾸준함의 가치를 발휘한 다른 선수들을 살펴본다.

●10년 연속 두 자릿수 승리 이강철

은퇴한 선수를 포함해 투수로 한정해보면 이강철이 꾸준함의 상징이었다. 해태에 입단한 1989년부터 1998년까지 계속 두 자릿수 승리를 올렸다. 10년 연속 두 자릿수 승리는 이강철이 유일하다. 한번도 다승왕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그는 ‘해태 왕조’의 뼈대로 활약한 고마운 존재였다. 은퇴할 때까지 개인통산 152승을 기록해 역대 3위에 올라있다. 이강철은 유일한 10년 연속 세 자릿수 탈삼진 기록도 보유하고 있다.

이강철의 뒤를 이어 정민철이 데뷔해인 1992년부터 1999년까지 8년 연속 10승 이상을 거두며 꾸준한 활약을 펼쳤다. 그리고 김시진, 선동열, 정민태, 리오스, 류현진 등이 6년 연속 두 자릿수 승리로 뒤를 받치고 있다. 올해 두산으로 이적한 장원준이 6년 연속 10승 이상을 달성하면서 KBO리그 현역선수 중에선 가장 꾸준하게 10승을 보장하는 투수로 자리 잡고 있다.

●10년 연속 세 자릿수 안타

타자의 꾸준함을 상징하는 지표라면 연속 시즌 세 자릿수 안타가 있다. 이 부문에서 양준혁은 1993년부터 2008년까지 16년 연속 100안타 이상을 때리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삼성 박한이가 지난해까지 14년 연속 세 자릿수 안타로 뒤를 이었는데, 올 시즌 부상으로 오랫동안 이탈해 위기도 있었지만, 1일까지 81안타를 기록해 기록 연장 가능성은 충분하다.

삼성 이승엽이 일본 시절(2004~2011년)을 제외하면 올해까지 14년 연속 세 자릿수 안타를 이어가고 있고, 한화 김태균이 11년 연속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10년 연속 세 자릿수 안타는 kt 장성호와 은퇴한 마해영, 그리고 정근우 등 3명이 기록 중이다. 이들 중 정근우만이 현재진행형이다.

한편 연속 시즌 두 자릿수 홈런 부문에선 장종호와 양준혁이 15년 연속으로 공동 1위에 올라있고, 박경완이 14년 연속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은퇴한 이만수와 마해영, 현역 이승엽과 김태균이 올 시즌 11시즌 연속으로 기록을 연장했다. 기록이 중단된 장성호와 함께 현역선수 중에선 최정(SK), 이범호(KIA)가 올 시즌 10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 클럽에 가입했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피츠버그 강정호(왼쪽)가 2일(한국시간) 밀러 파크에서 열린 밀워키와의 원정경기에 5번 유격수로 선발출장해 1회말 2사 1루서 2루를 홈치려는 진 세구라를 태그아웃시키고 있다.

밀워키(미 워싱턴주) | AP뉴시스

강정호, 9월 첫 경기부터 ‘13호’ 왕!

밀워키전 홈런 포함 멀티히트…타율 0.290

피츠버그 강정호(28)가 거포 본능을 또 과시했다. 시즌 13호 홈런을 포함한 멀티히트로 방망이 실력을 뽐냈다.

강정호는 2일(한국시간) 밀러 파크에서 열린 밀워키와의 원정경기에 5번 유격수로 선발출전해 홈런과 2루타를 치며 4타수 2안타 1타점 2득점을 기록했다. 지난달 29일 콜로라도전 이후 처음 멀티히트를 작성한 강정호의 시즌 타율은 0.288에서 0.290으로 올랐다.

2회 선두타자로 나서서 밀워키 선발 지미 넬슨에게 루킹 삼진을 당한 강정호는 0-5로

뒤진 5회 복수에 성공했다. 다시 선두타자로 등장해 넬슨의 시속 93마일(약 150km)짜리 초구를 공략해 중견수 키를 넘기는 2루타를 때렸다. 시즌 22번째 2루타를 기록한 강정호는 날 위커의 중전적시타 때 홈을 밟았다.

1-5로 뒤진 7회 1사 후 3번째 타석에서 2루수 직선타로 물러나 아쉬움을 남긴 강정호는 3-7로 패색이 짙던 9회 2사 후 구원투수 데이비드 고퍼스를 상대로 좌중월슬로홈런을 뽐내었다. 지난달 23일 샌프란시스코전 이후 7경기만의 아치였다. 강정호의 눈부신 활약

에도 피츠버그는 4-7로 져 79승51패로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선두 세인트루이스(86승46패)와의 격차가 6경기로 벌어졌다.

한편 텍사스 추신수(33)는 펙트 파크에서 벌어진 샌디에이고와의 인터리그 원정경기에 2번 우익수로 선발출장해 5타수 3안타 1타점 1득점의 맹타를 휘둘렀다. 시즌 11번째 3안타 경기로 시즌 타율도 0.245에서 0.249로 끌어올렸다. 텍사스는 난타전 끝에 샌디에이고를 8-6으로 제압하고 69승62패를 기록했다.

순정영 스포츠동아 미국 통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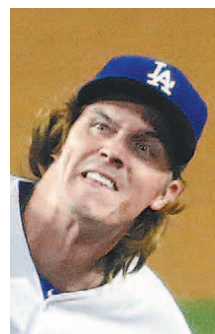
그레인키 15승…범가너와 재대결서 또 웃었다

SF전 7.1이닝 1실점…다저스 2연승

LA 다저스 잭 그레인키(사진)가 샌프란시스코 매디슨 범가너와의 맞대결에서 또 한 번 웃었다. 다저스는 2일(한국시간) 다저스타디움에서 만난 라이벌 샌프란시스코를 2-1로 누르고 이번 시리즈 2연승을 달렸다. 이날 경기는 그레인키와 범가너의 재대결로 화제를

모았다.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두 투수의 격돌은 이번이 두 번째였다. 첫 대결이었던 지난해 9월 24일에는 그레인키가 8이닝 2실점, 범가너가 7.1이닝 4실점해 그레인키의 승리로 끝났다.

이날 두 번째 대결에서도 그레인키가 승리를 챙겼다. 그레인키는 8회 1사까지(7.1이닝) 5안타 1볼넷으로 1실점하며 시즌 15승째(3패)



를 거뒀다. 샌프란시스코의 강타선을 7회까지는 무실점으로 틀어막았다. 2-0으로 앞선 8회 1사 후 3연속안타를 맞고 1실점했지만, 이어진 1사 1·2루의 위기를 구원등판한 좌완 루이스 아빌라이 막아냈다. 아빌라는 브랜든 벨트를 상대로 7구까지 가는 승부 끝에 2루수 앞 병살타를 유도해

이닝을 종료했다. 9회 등판한 다저스 마무리 켈리 잰슨은 삼자범퇴로 1점차 승리를 마무리했다.

범가너도 7이닝 동안 1홈런을 포함해 8안타를 맞고도 실점을 최소화(2실점)하는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줬다. 그러나 자신보다 더 ‘잔물 파청’을 한 그레인키에게 무릎을 꿇었다. 두 팀의 3연전 마지막 날인 3일에는 샌프란시스코 마이크 리크(9승6패·방어율 3.53)와 다저스 클레이튼 커쇼(11승6패·방어율 2.24)가 선발 맞대결을 한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